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 요구 건의안

의안
번호

1196

발의연월일 : 2006. 7.

발 의 자 : 박종식 의원 외 6인

1. 주 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명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 요구

2. 제안이유

가.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4호선 개통과 더불어 혜화역을 지명할 당시에 대학로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서울대학교 문리대와 법대 빈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화동 로타리 및 혜화동 로타리가 주로 알려져 있었음. 따라서 대학로 중심에 있는 지하철 역명을 혜화동 로타리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혜화역으로 지명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나.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첫째,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 등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지하철 개통 당시에 일방적으로 혜화역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주변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둘째, 대학로는 2004년 4월 28일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국제학술진흥원, 한국예술원, 한국문화진흥원, 그리고 홍익대, 한국방송통신대, 동덕여대, 중앙대, 서울대 등의 분교가 소재하고 있고,

셋째, 소극장은 전국의 80%가 넘는 60여개가 소재하고 있어 젊은 문화창달의 요람으로 크게 발전하여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로 문화지구를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가꾸어야 하며, 또한 종로·청계천관광특구와 함께 종로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유산과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를 이용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개통당시에 일방적으로 지명한 해화역이라는 역명은 개정되어야 할 것임.

마. 따라서 위에서 주문한 내용과 같이 역명을 『해화역』에서 『해화(대학로)역』으로 개정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역명을 개정하여 줄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것임.

3. 관련법규

없 음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역명을 『해화(대학로)역』으로 개정 요구 건의안

-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4호선 개통과 더불어 해화역을 지명할 당시에 대학로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서울대학교 문리대와 법대 빈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화동 로타리 및 해화동 로타리가 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로 중심에 있는 지하철 역명을 해화동 로타리가 잡다는 이유 때문에 해화역으로 지명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 주변지역 주민 및 상인들은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게 역명을 『해화역』에서 『해화(대학로)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 등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개통당시에 일방적으로 해화역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긍정적으로 해소하여 주어야 하고,

둘째, 대학로는 2004년 4월 28일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국제학술진흥원, 한국예술원, 한국문화진흥원, 그리고 홍익대, 한국 방송통신대, 동덕여대, 중앙대, 서울대 등의 분교가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셋째, 소극장은 전국의 80%가 넘는 60여개가 소재하고 있어 젊은 문화 창달의 요람으로 크게 발전하여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로 문화지구를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가꾸어야 하며, 또한 종로·청계천관광특구와 함께 종로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유산과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를 이용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개통 당시에 일방적으로 지명한 해화역이라는 역명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위에서 주문한 내용과 같이 역명을 「해화역」에서 「해화(대학로)역」으로 개정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뜻대로 역명을 개정하여 줄 것을 종로구의회의원 일동은 17만 주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6.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원 일동